

교회 목표

신앙관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장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 제24 성찬식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오늘 1부예배부터 5부예배까지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을 상징시키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

는 생명의 연결에 대한 상징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증거이다. 주님의 만찬은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

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를 믿는 사람들 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동시키는 도구이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

성찬에는 언제나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생명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에 참여함은 그의 십자가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모두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자! 그리고 죽음을 뛰어 넘어 생명으로 옮겨간 구속의 대가를 세상을 향해 지불 하라!

주간 성경공부 개관

진리의 검을 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진짜 칼을 뽑아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눅22:36,38). 주님은 죽자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엔 안타까움이 밀려들었으리라!

이번 주간부터 성경공부가 시작된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속한 검을 사려고 많은 시간을 지불하고 바쁘게 움직이는가!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여, 진리의 검을 장만하는데 시간을 지불하고 말씀의 검을 사라! 땅아에서 살아가는데 생명과 같은 결실을 팔아서라도 말씀의 검을 사라!(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각 성경의 개관은 아래와 같다)

열왕기하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인열함을 추구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신약기적인 원리가 기조여(신17:13-23; 21:10-16). 특정한 개인들과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부흥자들과 교도들의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신약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굴곡 지점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유형을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비록적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의: 여경기 목사)

시편

역사상 많은 고백록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시편만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솔깃없이 드러낸 적은 없었다. 시편은 다윗뿐 아니라 여러 시인들의 삶의 고백이다. 그 고백은 현실을 떠난 추상적인 것이거나, 보에 보지 않는 세상만을 통감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 고백에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며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향한 도전과 질문, 그리고 우리가 하고, 내가 보는 세상을 그들도 보았으며, 내가 말하는 현실을 더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이다. 그러나 시편이 감정적으로 위대한 것은 그들의 고백에는 과장이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진양하는 승리의 트럼펫 소리가 울려가게 퍼져 나간다. 이것이 시편이다 (강의: 안창덕 목사)

전도서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불의 꽃 같으니 불은 미르고 모든 시들은 여호와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책상은 살로 불이로다'(4:6-7). 이사야의 이와 같은 선언은 솔로몬의 부귀 영예를 얼마나 비웃는 말인가!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할 마음을 가진다. 솔로몬의 영성을 눈부시게 뽐내서일까? 그러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정반하였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솔로몬은 모든 영광 가운데 잠든 것이 어찌 나쁜 일이지 못하였는 나랴'(10:29).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경합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시대 주님의 음성이다. (강의: 김동하 목사)

에스겔서

본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남 유다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 주신 선지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의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참된 회복을 말씀하셨으며, 그 회복의 주체자로 오실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예언서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한 언약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길을 항상이라는 독특한 언어를 통해 보여 줄 것이다. (강의: 여경기 목사)

로마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바울의 신학을 자못새 있게 기록하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한 실천적 권고를 담고 있다. 이처럼 깊이 있는 내용과 체계적인 전개로 되어 있는 본서는 믿음의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바울의 복음사'라고 불려지고 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현재의 상황에 따른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창세, 성도와 같은 구원론의 중심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강의: 노광록 목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다. 물론 수신자는 갈라디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연대의 본인이 되고 있는 성장이지만, 몇몇 보수주의 학자들은 바울 최초의 서신서로 생각하여 인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서신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 20년을 뒤에 쓰여진 신약서신 최초의 서신인 것이다. 코모로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직 생존해서 신교합을 받고 있을 시기이다. 복음의 장수를 가장 성실히 담고 있는 성경, 갈라디아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종말의 때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참된 진리가 가운데 거하게 되길 바란다. (강의: 김명록 목사)

에베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시각이 지마다 다른 것 같다. 어떤 이는 교회활동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여 예배만 드린 후 바빠짐을 자랑한다. 어떤 이는 교회 활동에 열심인 참여자지만 의무감에 눌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모든 일이 기쁨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에베소서는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실 것과 주신 부요함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최원복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인 한 몸으로 세우시고, 종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비록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에서 애정 어린 영감으로 썼던 여섯 장, 모두 156구절의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새로운 신앙관과 교회관이 열릴 것을 기대해 본다. (강의: 서정진 목사)

디도서 : 빌레몬서

시대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진리에 대한 기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거짓 교회들도 다교하고 시대 뿐만 아니라 진리에도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거짓 교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 율법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율법인 진리 위에 율법적 적용과 삶이 가능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본문의 진리를 지을 수 있다. 그러

므로 디도서와 빌레몬서 공부할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율법과 실과 선행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시편24:1 본문을 이해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 나누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강의: 임재훈 목사)

크로스웨이 1권(신약편)

크로스웨이 1권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중요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약적계'를 담고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먼저 전체를 이해하고, 다시 부분적으로 자세히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아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크로스웨이 1권의 내용은 세신사에서 중직자까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특히,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전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도 이해와 기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여 공부하면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리라 확신한다. (강의: 이종대 목사)

크로스웨이 1권(신약편)

우리가 세계사를 돌아볼 때,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역사의 책에서 서서 보아도 인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약적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까? 이 땅에 살고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의 가장 거대한 고향의 길잡이는 무엇일지를 통하여 알게 될 수 있을까? 갈라디 언약으로 가 보라! 그 중심사려온 언약 위에 있는 십자가 앞에 서 보라! 크로스웨이 신약편을 통하여 우리는 갈라디 언약을 한 걸음씩 오를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다 보이는 복음의 신의 것과 그 의미들과 왕성의 비결을 맛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강의: 이종정 목사)

크로스웨이 2권(구약편)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는 말 그대로 신약의 깊은 의미이다. 특히 2권인 구약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금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공부할 통하여 배울 수 있을 것이다. 2권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든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칠 것인가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크로스웨이 2권을 공부하면서 재미있고 이 해가 깊게 구약의 역사를 편찬하게 될 것이다. (강의: 류병의 목사)

크로스웨이 5권(기도편)

Crossway는 가장 많이 십자가의 길이다. 크로스웨이는 1권은 신약의 흐름, 2권은 구약의 흐름, 그리고 3권은 구약과 신약의 구약이 있다. 아마 지금까지 1,2,3권은 많이 읽히되어 왔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크로스웨이 4,5권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크로스웨이 4권이 성령강림의 크로스웨이 5권은 기도편이다. 굳이 가지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예수님을 기쁘게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 받은 기적할 필요가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 기도 학교가 열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창지기를 기 다립시다.' (강의: 김진식 목사)

Fervently Praying Church

(Acts 12:5)

So Peter was kept in the prison,
but prayer for him was being made fervently by the church to God.

In today's Bible verse we read that "the church" fervently prayed for Peter. Here, the term "church" refers to all the churches who heard the news of Peter's persecution, not just the Jerusalem church. It's the universal church that is in mind—the scattered assembly of local churches throughout Judea who knew King Herod wanted to kill Peter. King Herod's desire was to be famous. Killing Peter would be a politically favorable move because the Jews hated Peter, especially the religious officials. All the high priests, scribes, and Pharisees wanted Peter dead. Consequently, Peter's death would make Herod a hero. Peter's situation was very dismal, very serious, and very dangerous. The Bible tells us that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church fervently prayed to God for Peter.

The Passover brought Jews from all over to Jerusalem. It was a perfect time for Herod to imprison and execute Peter. What publicity he would receive! To ensure his success, Herod had Peter guarded by a total of sixteen soldiers—four soldiers for each six hour shift. Two soldiers were chained to him and two soldiers stood guard twenty-four hours a day. This was a serious precautionary measure so that Peter couldn't escape. Not long before, Peter was miraculously released from jail by an angel opening the doors (see 5:19). The Jews and Herod wanted to make sure they weren't shamed aga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issues were too important for them to lose Peter. He needed to be persecuted in order for their agendas to be promoted. The death of James, the famous Christian leader, was only the start, Peter's death would ensure success.

When you look at chapter 11, you read about Peter's plea to the Jewish Christians in Jerusalem. They were unhappy at the report that Gentiles

were being saved. But Peter's review of what God had done for the Gentiles in Cornelius' house was the same as what God had done for them at Pentecost. Both groups had been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As such, after Peter's story they understood that this was God's doing (v. 18). Peter worked for the universal church. He prayed for the church which consisted of both Gentiles and Jews. He loved all Christians. Now, the church prayed for him.

What was the church doing? They were sharing each other's sorrow, hope, and joy. Over here, the church fervently prayed. Their prayers weren't formal, but heart-sprung. They didn't just say their prayers, they meant their prayers! Their prayers were deep, heartfelt, and sincere. They knew praying for Peter was dangerous because those in power hated Christians. They knew their prayers might bring them trouble in this situation. King Herod had already killed James (see v. 2), and now his desire was for Peter. The Jews were not only pleased with Herod's activity, but they, too, were also severely persecuting Christians. They wanted more victory, especially during the Passover period. In spite of all the circumstances, the church passionately prayed for Peter.

What was the church's situation? They had only one true option, but what an option! It was nothing but prayer. Some people may think that's not enough. Remember the Red Sea. All the Israelites, some 600,000 men and 2,000,000 people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were trapped between the Red Sea and fierce Egyptian army who wanted to destroy them. These people had no military training. Their whole lives consisted of slavery. They were marching toward the Promised Land. In front of them lay the impassable

Red Sea, and behind them stood Pharaoh and all his horses, chariots, and armed soldiers. Their situation was horrible! They had no power of themselves to overcome the sea or the soldiers. What did they do? They fervently prayed to God. They believed in the power of prayer. They awaited God's action! Amen! Think of Daniel in the lion's den and Elijah atop Mt. Carmel. Their situation was nothing but prayer to God. They all prayed fervently and sincerely, not like a daily routine kind of thing. The church knew that tomorrow their most important leader Christian leader, Peter, would be dead. The damage to the Christian church would be severe. They prayed for the church and its future; they asked the Lord to save Peter.

Whenever God's people pray God's mighty power comes! Prayer is the best weapon against all adversity.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Phil. 4:6). Peter himself tell us,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of sound judgment and sober spirit for the purpose of prayer" (1 Pet. 4:7). Amen! Even when the disciples were unable to cast out certain demons, Jesus told them, "This kind cannot come out by anything but prayer" (Mk. 9:29). Prayer is powerful!

What happened? The church received a wonderful, wonderful answer. They received an answer that no one could have anticipated or imagined! When Peter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of Mary, the servant girl Rhoda was so overjoyed that she forgot to open the gate for him and instead ran back and told all the others that Peter was at the door. The others, who were in prayer for him, didn't believe Rhoda, "They said to her, 'You are our of your

mind!' But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They kept saying, 'It is his angel'" (v. 15). Even in the midst of their praying they received God's answer, but still they couldn't believe it. God's answers are so, so wonderful!

My dear friends, when there is no hope in a situation and tomorrow looks like everything will be over, like Peter who slept chained to two soldiers with two other guards watching the doors, and tomorrow will be the end, what will you do? Let me tell you, God is ALIVE!!!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is on your side. Do you have faith? Then continue in your faith! This isn't about rituals. This church fervently prayed to Mighty God. Amen! When you pray fervently to the Lord, you will recei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n concluding, let me share with you a story about Charles Spurgeon. He was once showing some visitors around his huge church in London. His church was not only large but very beautiful. The people were quite impressed! He walked them around to see all the various church facilities, and then told them he would even show them the hidden apparatus. Imagine the visitors surprise when he opened the door to a room filled with four hundred members engaged in prayer. Indeed, the church which is rich in spirit must have rich producing prayer meetings. I hope Choong Hyun continues to fervently pray to the Lord in every meeting, in every room of our church. I know we will receive a mighty and wonderful answer that we couldn't have even thought of ourselves! Jesus Christ loves you. He has given you all His love, body, and blood. If you pray to Him, how much will He give to you? Bless the Lord. Amen! ■



김성관 목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행 12: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를 감금한 헤롯의 목적

오늘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기 교회라는 단어는 단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인 보편 교회, 즉 유대 땅 전체에 흩어져있는, 헤롯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 교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헤롯왕의 야심은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죽음은 헤롯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심각했으며 위험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이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철두같은 감옥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방방곡곡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 때야말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기에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로 인해 받을 헤롯의 명성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네 명의 병사들이 6시간씩 돌아가며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16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였습니다. 두 병사들은 베드로와 식사술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두 병사들은 겉에서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병사들은 베드로를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탈출할 수 없도록 엄중히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는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 기적적으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행 5:19). 유대인들과 헤롯은 다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안들이 베드로를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권력자들의 힘의 사상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죽음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 베드로의 죽음은 그들의 성공을 확실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여러분들이 1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청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보고에 기뻐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 이방인들을 위해 하신 일과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전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행 11:18). 베드로는 보편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로 이루어진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심의 기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시로의 술과 회향과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문을 그쳐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깊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헤롯왕은 이미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했고(행 12:2)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의 행동에 기뻐한 것 뿐만 아니라 그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월절을 계기로 더 많은 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탁월한 선택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진정한 선택만 가졌습니다. 참 놀라운 선택 사항입니다. 그 어

떤 것도 아닌 기도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흥해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마도 60만명의 남자와 200만명의 여자, 아이들은 흥해와 자신들을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불가사의의 흥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기병들, 전차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나 군대를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사자들의 다니엘과 갈렘산에서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다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다음 날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받을 피해를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교회의 교회의 미래 위해 기도했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은 찾아옵니다. 기도는 모든 적들을 향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베드로가 직접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아멘! 제자들이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할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9).” 기도는 강력합니다!

놀라운 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놀라고도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의 뒷문을 두드렸을 때, 여종 로베는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고 그

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들은 막상 로베를 믿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나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행 12:15).” 그들이 기도하는 중인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기도하라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면, 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다면, 마치 베드로처럼 두 병사들과 함께 사슬에 묶이고 다른 두 사람은 문가에서 보초를 서는 상황인데 내일이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편에서 계시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교회들은 그저 종교적 예식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찰스 스웰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방문객들에게 런던에서 그가 시무하는 거대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었대요. 그 교회는 거대한 뿐만 아니라 참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교회 시설들을 보여주고 또 그밖에도 건물 안에 숨겨진 여러 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스웰전이 4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뵈러 한 방문을 여는 순간 놀라와 했던 방문객들의 표정을 말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풍부한 기도를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교회의 모든 방들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전능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여러분께 그 모든 사랑과 몸과 보혈을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분께 기도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께 얼마나 부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일본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바다 건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수정 (에바다부)



먼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나를 사용하여 주셨고 밝은 세상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망글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7박 8일동안의 일정으로 일본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일본 단기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본의 수화와 우리나라의 수화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미리 배워간 일본 수화와 세 번의 '한일 수화 세미나'를 통한 경험으로 많은 어려움 없이 일본 농아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종교가 많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거나 '삼메'라고 하는 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모두 모여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일본의 농아인들을 하나님께 믿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세미가를 통하여 많은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녀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활동을 통

하여 우리들은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출석하는 일본인들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 보통 40명정도 모이는 일본 농아인교회에서 80여명이 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교팀은 우리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입고, 정성스레 준비한 떡국을 나누면서 예배에 참석한 일본인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는 충헌교회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날, 일본 농아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초청으로 감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농아인교회 성도들과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인하여 일본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작은 믿음이 땅에 떨어져 씨가 열매를 맺듯이, 그들로 인하여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도 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선교는 그 사랑을 얼마나 전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에는 아직 농아인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에바다부에서도, 선교에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하여 믿음을 안에서 성장하는 일꾼들을 세게 각처에 보내내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모든 것을 게워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사랑하는 사마르칸트

김의진
(외선부 교사)

수도인 타슈켄트에서의 일정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삶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수도인 타슈켄트에서는 종교적인 특색을 별로 찾을 수 없었지만, 과거 수 세 년간의 공산주의 제도에 젖은 삶의 습관들이 그들의 지고야 하라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심방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될 사마르칸트로 발걸음을 계속했다.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이고,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무엇보다도 외선부 CIS팀(독립국가연합)의 시조인 근로자들의 가정이라는 바로 그 땅에 도착했다. 타슈켄트가 러시아식 도시였다면 이 곳은 이슬람적 도시였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 복장 등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로 단기선교를 온 착각이 들 정도로 같은 나라 안이었지만 민족적,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생김새와 복장을 보면서 이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엄격으로 조금도 건장을 노출 수 없었다. 그렇지만, 외선부들을 통해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마르칸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경계심 같은 것들이 은혜 안에 감추어짐

을 느낄 수 있었다. 심방사역이 시작되면서 현지인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의복과 안부와 소식을 가지고 온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대접하였다. 방문할 때마다 가장 최선으로 대접하며, 가능한 한 모든 음식을 주려고 애쓰면서도 내심 무척하다

고 미안해하는 그들을 보며 한국사람보다 더 많은 정이 느껴졌다. 비디오통해 자신의 소식과 안부를 전하는 근로자를 보는 가족들은 격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색한 우리와의 관대도 이러한 눈물을 통하여 해소되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게 된 가족과 헤어질 때는 손을 맞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현지인은 법적으로 회교를 다닐 수도 세울 수도 없는 이 땅에서 가정과 장마당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했고 우리가 맞닿은 손과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기도하였다. 가정들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명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외선부에서 봉사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들을 모셨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과 사마르칸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 전국길도 여행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정옥련 (교구, 집사)

지난 해, 서울 중앙병원에 처음 전도하러 다니던 때였다. 중앙병원 전도팀이 모여서 주간 충현회가 나가고 각자 정해진 병동으로 들어갔다. 내가 간 곳은 정형외과 병동이었다. 병실에 들어가 60대의 한 남자분이 매일 충현회를 드리며 말씀을 믿으시라고 했더니, 아라 죽었는데 예수가 뛰시고, 이런 것만 본다면 무슨 화를 내셨다. 그 뒤로 그 분은 인사를 해드려 보지 않고는 잠들지, 돌아 누우시는 게 무슨 거부사의 표시를 하셨다. 몇 달이 지나고, 그 날도 나를 보고는 잠을 시킬래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좀 어머시냐고 물었더니 눈을 뜨시고 팔로리미 쳐다 보시다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나고 해서 기도원도 다니고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병 나기는커녕 더 심해졌다'면서 또 화를 내셨다. '지금 이렇게 아픈데 죽어서 천국가면 뭐하냐! 소용 없다.' 하시고 돌아 누우셨다. 그 분은 예수님을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지 같았다. 영혼 구원의 확신없이 예수 믿으면 병이 나고 복을 받는다는 말에 믿고 있었던가 비 더 악화되다가 마음이 상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병원에서 말씀으로 변해 있었다. 한 주간 동안 그 분 생각이 떠나지 않아 기도하면서 다음 월요일에 그 분을 찾았다. 그분이 더하셨는지 인사를 했더니 받아주셔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병이 나는데도 했는데 낫지 않아서 속 상

하시죠? 그렇지만 할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으로 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를 우리들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 온전히 마음을 빼돌려 군대가 되게 하신 능력으로 할아버지의 상처에 살이 돌아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답니다. 먼저 할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믿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세요.' 말씀을 드린 후에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 드렸다. 그 후부터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수고한다고 하시며 젊은 날부터 늘 아팠던 이마기를 해 주셨다. 젊은 날부터의 아픔으로 기도원에 이 곳 저 곳 다니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어서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동네 회교를 다니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향인 전남 함평으로 가시다. 오랜 병상생활에 지쳐 있는 그 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2)

13기 LMTC(충희선교훈련원)

평신도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월 3일~6월 23일

교 육 비: 5만원(문화 날부 가능)

선교파송 대상국: 아프리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수단, 인도

문 의: 선교위원회(567-9544, gswj@unitel.co.kr)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수시

모집대상: LMTC 수료자

제출서류: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사역국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박태양' 전도사 단기선교 출국

선교위원회 외국인 선교부에서 사역하던 '박태양'

전도사가 2월 27일 화요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

다. '박태양' 전도사의 방글라데시 사역기간은

2001년 3월 1부터 2002년 2월 까지이다.



고등부 순교지 탐방을 다녀 와서

“그들이 흘린 땀은 피”

강 문 구 (고등부)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순교하는 것이
다.”

이번 고등부 겨울수련회에서는 ‘순교지 탐방’이라는 참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순교지 탐방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순교묘지가 있는 양화진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곳은 아무 것도 모르는 타지에 단지 주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선교를 하다가 결국 죄 아닌 죄명을 쓰고 순교하신 분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었다. 묘비에 적힌 이름은 모두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다 유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내건진 이름은 아니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낯선 땅을 자신의 조국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땅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 수 있게 하였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나는 에레미아의 고백에서 찾았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던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끝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건널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제암리 교회였다. 그 곳은 일제시대, 일본에 항거하던 제암리 주된 23명이 학살되었던 장소다.

제암리에 계신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비록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그들은 지금 분명 행복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 곳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다. 이곳은 한국 교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들의 깊은 믿음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 기념관을 올라가는 길에는 여러 모양의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여러 순교자들의 이름과 각각의 성경구절이 적혀 있었다. 바위에 적혀 있는 성경구절 중 나의 가슴에 여 닿는 말씀이 있었다

“할렐루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막 10:28).”

이번 순교지 탐방은 방문을 통해 나는 우리 나라 사람들도 순교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흘린 땀은 피아말로 이 척박한 땅에 심겨진 교회의 씨앗이라.....

이번 순교지 탐방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신 여러 순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 역시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멋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피 흘리기 까지

강 민 철 (고등부 교사)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맛이!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맛있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란다.’

고등부 수련회의 첫날은 이렇게 순교지 탐방으로 시작되었다. 첫번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허버트, 심지어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왔다가 당시 열악한 한국의 환경과 풍토병 등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이 땅에서 눈을 감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주위가 숙연해 지기도 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이 땅의 순교의 역사인 제암리 교회와 마지막으로 방문한 한국인 순교자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순교가 있었기에 지금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구나 생각할 수 있었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였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풍전단화의 한국 근대사 속에서도 곳곳이 믿음을 지닌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정

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낀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예전과는 달리 순교지 탐방으로 시작한 고등부 수련회는 학생들이 말로만 듣던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묘지와 비석과 기념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한 산 신앙 교육의 현상이 되었다.

그 후 충현 기도원에서 시작된 부흥회는 ‘피 흘리기까지’라는 주제로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밤이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부름받고 눈을 흘리며 중보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충현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었다. 또한 특별활동과 조별 찬양 시간을 통하여 고등부 자체들이 더욱 더 하나님과 헌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고등부 수련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한 뜻깊은 수련회였다. 스터반의 순교에서 시작되어 이 땅에까지 이어진 순교자들의 기도와 사랑들을 볼 수 있었던 이번 수련회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들의 삶이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유익한 기간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자기 민족의 돌을 맞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최초의 순교자 스터반의 사랑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증거하며 순교한 다른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본 발을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평생의 구주를 만나며 ...



윤 지 현 (고등부)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고등부에서는 ‘피 흘리기 까지’라는 주제로 충현 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를 열었다. 이번 수련회는 이례적으로 양화

진에 있는 순교자 묘지와 제암리 교회, 순교자 기념관 이렇게 세 곳의 순교지들을 탐

방하였다. 개회예배를 마치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양화진 순교자 묘지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님들과 그 자녀들의 묘지. 그 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복음에 굶주리고 있었지도 모른다.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님들의 그 신앙에,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다음으로 간 곳은 제암리 교회였다.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가 그 교회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다. 믿음 하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옛 신앙의 선배님들의 의지가 참 대단하게 다가왔다. ‘나 같으면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았는데, 아직 나는 부족한 존재란 걸 느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 기간동안 이 부족함을 믿음으로 채워 달라고 기도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순교자 기념관이었다. 이 곳에도 역시 수많은 순교자들의 사진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입구에 있는 돌에 쓰여진 글을 하나 보았다. ‘순교자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것을 보면서 이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필박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교지 탐방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충현기도원에 도착했다. 그 뒤로 이어진 찬양의 시간과 부흥회 그리고 기도회로 수련회의 첫날을 마쳤다.

둘째 날,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YOU’ 시간이었다. 나는 수련회 가기 전부터 ‘YOU’ 시간이 가장 기대되었다. 매번 수련회 때마다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정말 재미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은 고등부인 할 때라고 지냈던 형제들을 많이 사귄 수 있

때문이다. 저녁식사 후 야드니엘의 찬양과 마라나타의 성가, 김영훈 목사님의 부흥회,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밤의 기도회가 이어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였다. 내 눈에서는 속죄와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기도회의 기도가 아니었다. 나에게 찾아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예수님을 내 평생의 구주로 섬기고 피 흘리기까지 따르겠다고 기도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의 부흥회는 끝이났다.

셋째 날 아침시간에는 특강이 진행되었다. ‘NO DATING’이라는 주제로 강민철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다. 이 특강을 통해서 이성교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수련회 마지막 프로그램인 조별 찬양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16개 조가 편성되었다. 그래서 1조부터 16조까지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별 찬양시간을 진행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주님은 다 기뻐 하시길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회 마지막은 소감을 말하라는 단원이 ‘만났다고’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태까지 만났다고는 해놓지 않았다. 전에 다녀왔던 수련회에서는 한 번 받은 은혜로 6개월을 살고 그 6개월이 지난 후 또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6개월을 살고... 이런 식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수련회는 6개월이 아닌 내 평생의 구주로 섬길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한 수련회였다.

구역탐방

‘너희 안에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느뇨?’

7교구 올림픽 4구역



충만함으로 채워졌다.

들어가면서-

깊은 은혜로 하나가 된 구역 식구들은 본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죄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죽음의 인생들에게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다.

머물면서-

영 죽을 우릴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열매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자의 마음에 거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찾아가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나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거할 장소를 내어주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깊이 깊이 회개했다.

다른 구역의 구역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또 한 번 체험할 수 있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구원에서 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세밀한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 이 조그만 구역에까지 2000년이 지나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빛으로 찾아 오셨다. ‘너희 안에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느뇨?’ 하며 물으시는 예수님. 정말, 이 간절한 물음에 우리는 진지하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전 교구 위에 감은 은혜로 부어주신 축복의 모든 구역예배가 말씀으로 하나 되었음을 확신하며 씩씩한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박영선 기자)

구역탐방 기자로서의 첫 발걸음...

기도로 준비했지만 역시 마음 한 구석엔 떨칠 수 없는 부담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밖으로 나섰다. 아,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게 아닌가! 촉촉히 젖어드는 대지가, 이 어지러운 세상이 하나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 손안에 담기는 듯 해 포근함이 느껴지고 편안함이 찾아왔다.

7교구 올림픽 구역. 뱀을 놓았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구역장님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평소 구역예배에 참석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정애 권사님, 김경희 구역장님, 박영선, 유미숙, 이현주 집사님, 다섯 분이 모여 준비찬송과 함께 구역장님의 목도예배가 시작되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나...” 다음 구절이 들리지 않는다. 대신 조그만 호느낌이 이어졌다. 벌써, 구역장님예전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이어 구역원 모두 같은

따뜻한 이야기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박영선 (집사, 7교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헬욕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들을 늘상 기도의 빛을 지고 살아가다, 입시생을 위한 준비기도 모임에 매달다 동행하게 되었다.

올해도, 집사님들의 아들과 딸들의 입시를 놓고 1년간 기도했다. 결과는 불기다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믿음 약한 나에게는 그 결과와 또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내게도 대입실제의 경향이 있고, 그 결과의 고통은 정말 끔찍했기에 (그 때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고통을 겪을 어린 마음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

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넉넉한 믿음으로 결과에 감사하며, 모든 고통을 제물로 (히 4:15)하신 데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소망없는 인간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얻는 진정한 축복인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아닌가! 오늘도 쓸데없는 슬픔에서 벗어나 은혜의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길 기도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인도지의 편지

“주시는 축복... 그리고 감사함”

주간 축헌의 원고 청탁을 받고 새삼스레 혁전씨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그것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읽는 글이라 생각하니 서두를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결혼 전 혁전씨에게 보낸 몇 안되는 편지를 찾아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봅니다.

‘혁명세!’

축·하·해·요! 오늘이 소망·이 맘들이

혁명세! 살 속에서 아홉달째 열매 맺길 비로소

이 세상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혁전씨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많고 많은 믿음 중에서

주님이 천히 선택하신 혁전씨 위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는지,

주님의 우리 두 사람을 향한 사랑은 예비하신, 만남 그리고 하나됨.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두 사람의 기쁨에 늘 커다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2000. 10. 22 축복된 날에 회...

혁명전씨 세례를 받은 날 두 번째 성경책을 선물하며 쓴 편지예요.

모태신앙인 저는 그리 성숙된 신앙은 아니지만 주께서는 지켜주시니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기도로 새 힘을 얻었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음에 늘 든든했어요. 혁전씨에게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는 강요보다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혁전씨는 병역특례 훈련기간 중이어서 보다 쉽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 통신교포, 학습을 거쳐 세례를 받기까지... 그 의지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지난 해 11월 결혼식 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시댁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께 혼인선약을 할 수 있었던 시간도 감사했구요.

또 잊지못! 올해 들어 주님에게 예비하신 또 하나의 사랑, 바로 혁전씨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말이에요. 찬양대 여러 어른들의 기도와 권설에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기쁜 건, 그 동안 혁전씨 누님들과 여동생 모두 주님을 아는 데 아직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했지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찌넘게도 전해져 율해 설날부터는 한 쪽에 차려두던 제사상도 놓지 않으시고 가까운 교회에 한 번 가 보아주었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혁명전씨 주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축복에 늘 감사할 줄 알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뻐 찬양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바라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같이 만들어 가요.

2001년 2월 28일

김수희 (할렐루야 찬양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학연·신모순·이지선’ 가족을 소개합니다



시어머님(김광순 집사)을 비롯해서 온 집안이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이학연 님은 어릴 때 교회에 다니다가 중도에 나오지 않았고, 아내 신모순 님도 기독교 학예사 다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았지만 중년에 대한 회의와 여러 생각 때문에 섰을 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들 통신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 식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아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예수님만 성기는 우리 집

송혜경 (영아부 교사)

2월19일 월요일, 도로는 온통 자동차로 뒤덮여 교회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아침시간! 더군다나 녹지않은 눈은 우리를 더욱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날씨가 좋지 않아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적당하였다. 드디어 천국잔치와 교사들의 기도모임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먼저, 찬양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전도사님의 '예수님만 성기는 우리 집'이란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부터 꼭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집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 동안 바쁘고(2) 겨울을 리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일을 잊고 생활 했던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 요즘, 가정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지,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막고 있지는 않은 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막연하게 잘 되기만을 원하지는 않는 지 등을 생각해 보았다. 전도사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되는 것도 바쁘거나 되는 것도 아니라 잘 씌우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을 강조하셨다. 아이들은 만들기 시간에 색종이로 집

을 만들어 그 속에 자신의 집임을 알리는 아기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편지)를 적어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임을 알렸다. 이날 특별강사로 영아부 학부모인 김교성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복을 위한 기도가 가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모세의 부모와 세례요한의 부모 이야기를 빚어 설명해 주셨다. 목사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 부모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 단대한 부모,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웃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땅의 것으로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이 늘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셨다.

성경학교 때마다 인형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열 명의 동등한 자 중 한 명만이 예수님이 되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성경 이야기! 나머지 감사하지 않는 마음 중 내가 있지 않은 지,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는 않는 지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길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 날에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참석하여 천국잔치의 기쁨을 더 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다.



천사들의 합창

김지희 (유아부 교사)

우리 찬양대 아이들 중 이성원, 김지민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찬양하는 것 좋아해요?

이성원, 김지민 : 좋아해요.

찬양할 때 기분이 어때요?

이성원 : 좋아요.

김지민 : 일주일 동안 이 순간(찬양대)에서 서서 찬양하는 때만 기다리며 살아요.

친구들은 찬양할 때 무슨 생각해요?

이성원 : 하나님입니다.

김지민 :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해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이에요?

이성원 : 오복가 잘 부르는 '거룩 거룩 거룩(19장)요.'

김지민 : 지난 주 성경학교 때 했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전송가 241장)이요.

주말 날 교회 오는 것 좋아요?

이성원 : 좋아요. 마음이 가벼워요.

김지민 : 많이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이성원 : 요즘 설교 말씀인 창조 이야기요.

김지민 : 저두요. 눈은 하나님에 내려주시고요, 지만도 하나님에 만들어 주셨어요.

참 귀한 고백이지요? 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천국의 일꾼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집에서 늘 면서도 찬송을 흥얼거리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에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소망 합니다.

진리의 생

'욥기(Job)'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은 욥기를 생각하시면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고난'이었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한가지가 더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습니까? 한 번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셨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욥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전혀 짐작조차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욥 1:6-12).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난의 원인과 해결책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 범위 내에서 찾으로는 어리석은 일을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앞선 것이요, 그러므로 욥기를 읽을 때는 '고난에 대해 인간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리석은 판단들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엘리사는 경형에 일가해서 말을 했(4:8, 5:17-27, 22:5-9), 빌닷은 전능에 간거했(8:8, 20, 18:5-20), 소발은 추측에 근거해서 말을 했다(11:6, 20:5). 그리고 엘리샤는 욥에게 더 존손해줬는데 온순해졌 것과 더 인내할 것을 권하(33:8-11, 35:15-16).

또 한가지 욥기를 읽으실 때 주의 고난에 대한 욥의 성정을 유심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았 했을 때, 욥은 무척이나 억울하고 답답했었다. 그래서 논박하고 논쟁을 벌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변한 논쟁은 욥의 마음에 결코 유익한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었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인간 자신의 언행과 인간적인 논쟁은 결코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었요. 그래서 욥기를 읽게 되면, 빌라도의 법정에 서도 오도불서죄 무함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논쟁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었기에 당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아셨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 채, 참절히 어떤양행할 줄과 그의 언행으로 풀려났었요. 그리고 극한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계셨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뿐 아니라 스테판, 옥중의 바울과 실로 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이었습니다. 결국 욥이 참혹하게 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게 된 이후였습니다(38:40-42). 욥은 처음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의아함과 한탄에 빠졌으며(3:3), 친구들은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 모든 일을 잊었습니다(42:5).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를 졌"과 "가운데에 회개하오니!"라고 인간의 한계를, 아니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고백하고 돌이킬 뿐이었습니다(42:6). 더 이상 고난 자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결코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그 "나"이고 기원이 "너"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2:17). (김동현 목사)

내리는 그리스도의 땀나



동행

땀땀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어릴 적부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자라 온 나는 강아지들과 아주 친숙해서 길을 기다리다 강아지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습관으로 어린 시절 모르는 강아지를 만나다 얼굴을 붉혔던 아주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지나가는 강아지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집에는 10년 동안 일찍은 '토니'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발바리 종류의 '토니'는 애교가 많아서 온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다는 이만하면 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이 애는 집에 살다보니 매일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야 하는 일은 가장 번거로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나는 강아지와외의 산책을 늘 동생에게 마루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급하게 강아지와외의 산책을 내가 도맡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아예 걸음도 고개를 한 나에게는 식구들은 '토니'의 산책을 내가 해야한다는 것으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강아지를 끌고 1시간씩 온 동네를 누비던 나는 어느 날 아주 재미있게 산책과 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일종의 승마복질인데, 강아지 줄을 살짝 내려놓고 '토니'가 모르게 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기 줄을 놓은 줄 모르고 자신의 가던 길로 가던 '토니'는 내기 없었기 때문에 알고는 나를 찾으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또 제바라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니'는 나를 손잡이에서 떨어뜨려 빨리 줄을 잡으라고 '영성' 떼어댔다.

10년 동안 나는 주인의 줄에 이끌리어 다녔던 '토니'는 주인의 줄에 이끌리어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안 모양입니다.

너무나 예뻐 보이는 '토니'를 보며, 순간 나는 '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맑을까? 나에게도 내가 가고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잖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얼굴에 흐듯한 미소가 생기겠지!'

"나의 주인되신 하나님!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성진)

--	--

충현증보의창

① 김성헌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고, 목사님을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시길

② 김창민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불붙리게 하시고, 모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신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나 직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순종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와 헌신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거하게 하소서.

⑥ 총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충남복지관 안내

스포츠 댄스 안내
시간 : 매주 화요일 10:00~11:30
수강료 : 월 4회 2만원(3개월 과정) 개강일 : 3월 13일(화)
사물놀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10:00~11:30
수강료 : 월 4회 2만원(3개월 과정) 개강일 : 3월 22일(목)
자활봉사자 모집 안내
모집대상 : 정신지체인에 관심있는 모든 분
봉사내용 : 작업보조, 업무보조, 프로그램 진행보조
봉사기간 : 주 1회, 3시간, 6개월 이상

첨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사무집로		이홍재	이승수
■ 김철원	조순근	김재봉	김진식
신교목회	기독교	이경환	이성기
오진국	이학박	이종현	김영훈
기독교	교구교회	이승환	이유진
임필영	장종용	송원배	이유진
장신교	복음주의	장은희	권영일
남순수	사동적	김영희	이은영
장신교	장로회	최희규	이은영
홍훈구	장로회	김종구	최희규
복음주의	장로회	최희규	최희규
김진재	이창호	최희규	최희규
장로회	장로회	김영명	김영명
박영식	김장남	이종식	윤기철
장로회	장로회	이종식	이종식
이하영	박정민	김근관	이병욱
장로회	장로회	김근관	김근관
안종욱	최정환	임무현	이종식
장로회	장로회	이종식	이종식
최기호	이재재	최희준	최희준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8:3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아동·유아는유치원예배)	본당	
V	오후 3:30	본당	
VI	오후 7:00(노년예배)	본당	
주일예배	오전 8:30	본당	
초·중·고	1:00 ~ 1:50	본당	
대학예배	1:00 ~ 1:50	본당	
세례기도회	토요일 7:00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5:00	본당	